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8회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에서 우승한 신은섭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아빠, 나 우승 먹었어” 신은섭의 사부곡

###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 제패

추석 앞두고 생애 첫 대상경륜 정상 신은섭 “돌아가신 아버지 찾아뵙겠다”

신은섭(29·18기)이 경륜 데뷔 5년 만에 생애 첫 대상경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8일 광명스피드에서 벌어진 특선급 결승전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에서 우승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미 있는 선물을 드렸다. 신은섭은 객관적 기량에서 박병하(13기), 류재열(19기) 보다 열세일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보기 좋게 뒤집었다. 막판 극적인 추입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경기운영의 묘를 살려 금요일 예선, 토요일 준결승을 가볍게 통과한 신은섭은 결승을 앞두고 큰 욕심 없이 입상권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타종시점 병주 상태에 있던 선두의 박병하가 힘들게 선행하는 순간 신은섭은 우승을 직감했다. 침착하게 경주를

풀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 제일 먼저 2년 전 작고한 아버지를 떠올렸다. 지금의 신은섭을 있게 한 아버지였다. 경륜선수 신은섭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경륜 관련 일에 종사했던 아버지는 막내아들들 경륜선수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신은섭을 송파중으로 전학시켰다.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한 것은 부족함 없이 지원했다. 안 먹여본 보양식이 없을 만큼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 줬다. 포레 보다 늦은 나이에 사이클을 접한 신은섭이지만 아버지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 서울체고→국민체육진흥공단→상무→한국체육대학 등 엘리트코스를 차례로 거치며 경륜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중·장거리 사이클 선수출신이었던 신은섭은 경륜 종목 특성상 단거리 출신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았다. 다행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경륜 18기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훈련생 시절 스피드스케이팅 출신의 강준영(22기 합격)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운동법을 익혔다.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중을 20kg 불리면서 대성할 토대를 마련했다. 1년간의 훈련원 시절 스스로를 혹독하게 체질시켰다. 미친 듯이 훈련에 매진했다. 힘든 고비도 수없이 많았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겨냈다. 맑은 배신하지 않는 법, 박용범에 이어 당당히 18기 차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동서울팀에 등지를 들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다. 낮잠 자는 시간, 식사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톨니바퀴처럼 지냈다.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런 노력은 점차 실전에 반영되며 인지도가 차근차근 올라갔다. 하지만 순탄한 길을 달릴 것 같던 신은섭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버지의 급작스런 작고, 아내의 유산,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골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뒀던 것이다. 심신은 지쳐갔고, 신경은 예민해졌다. 다행히 방황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늘 옆에서 물심양면 내조를 해준 아내의 슬기로운 대처 덕에 슬럼프 기간은 짧았다. 삼기일전한 신은섭은 스피드 파이크 끈을 다시 동여맸다. 김경남 매니저의 코치 속에 오토바이 유도훈련 시간을 늘렸다. 장점인 순발력, 폭발력, 스피드 보강훈련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가 지난해 6월 창원 결승에서 슈퍼특선급 이명현을 상대로 따낸 것까지 우승이었다. 당시 우승은 이번 스포츠동아배 대상 우승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신은섭은 “당분간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찾아뵙 생각이다.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우승으로 책임감과 부담감을 커졌지만 소중한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고의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 경정 그랑프리 포인트 경쟁 ‘불꽃 튀네’

출전 티켓 24장...남은 포인트 경주는 3번 하위권 선수도 우승 1번이면 본선 가능성

경정은 2015년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그랑프리 포인트(GPP) 쟁탈전을 처음 도입했다. 올해로 2년째다. 그랑프리 포인트 쟁탈전은 연말 그랑프리 경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연중 그랑프리 포인트를 주는 경주를 개최해 포인트를 많이 따낸 선수에게 한 해 마지막 대상경주 그랑프리 출전할 자격을 주는 시스템이다. 중·하위권 선수들도 포인트를 따면 대상경주 출전자격을 얻을 수 있다. 폭 넓은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고, 선수들도 포인트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양질의 경주를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올해 그랑프리 대상경주 출전티켓은 24장이다. 포인트가 걸린 경주는 ▲그랑프리 포인트 쟁탈전(3월, 5월, 6월, 8월, 11월) ▲각종 대상경주(스포츠월드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스포츠경향배) ▲특별대상경주 쿠리하라배 등이다. 그랑프리 포인트 부여방식은 예선전 1위부터 6위까지 1위 30점에서 시작해 6위 5점까지 순위에 따라 5점씩 점수가 줄어든다. 결승전은 점수

가 2배로 된다. 1위가 60점이고 순위에 따라 10점씩 내려간다. 6위는 10점. 올 시즌 그랑프리 쟁탈전은 4차례, 대상경주는 2차례 벌어졌다. 현재 포인트 1위는 심상철(7기·34세)이다. 235점을 쌓았다. 2위는 김현철(2기·48세)의 205점, 3위는 이태희(6기·30세)이 175점으로 바짝 뒤 쫓고 있다. 권명호(1기), 장영태(1기), 고일수(5기), 유석현(12기), 한진(1기), 이재학(2기), 어선규(4기) 등도 좋은 성적을 기록해 남은 경주에서 우승한다면 앞에

있는 선수들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포인트 경주는 3번이다. 8월 말 성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위권 선수들도 한 차례 우승하면 충분히 본선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 상위권 선수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정 전문가들은 “올 해 그랑프리 포인트 경쟁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그랑프리 출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경주에 출전해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 “경륜경정 좋아요” 대학생들 ‘엄지 척’

### 전국 대학생 SNS 홍보 경진대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전국 대학생 SNS 홍보 경진대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 SNS 홍보 경진대회는 교수와 대학생이 한 팀을 이뤄 경륜경정을 홍보하는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홍보실적을 평가해 우수 팀을 선정하는 축제다. 이를 위해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6개 팀(계명대·관동대·국민대·동국대

·상지대·한양대)를 선정,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했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간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해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벌어진 대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희복 교수는(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이번 홍보 경진대회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창의성과 내실 있는 콘텐츠로 경륜경정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경륜경기를 관람

한 김세진(계명대 광고홍보학과 4학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륜경기를 직접 봤는데 경기장도 너무 쾌적하고, 경주 속도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라 굉장히 흥미로웠다. 앞으로의 홍보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경륜경정 마케팅 관계자는 “경륜경정장이 베티만 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그간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온 좋은 모습도 알리고, 미래 고객이 기대하는 경륜경정의 모습도 더 잘 알리기 위해 경진대회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경륜경정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갈 것”이라고 했다. 김종건 기자

경륜산본지점 자전거·안전모 나눔행사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 산본지점이 25일 군포시청 분수광장에서 군포시 관내 저소득층 중·고생들에게 자전거와 안전모를 지원했다. 김윤주 군포시장, 박병배 경륜 산본지점장, 강성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략사업팀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경륜산본지점은 자전거 20대, 안전모 20개 등 500만원 상당의 사랑나눔기부물품을 전달했다. 경륜 산본지점은 “군포시 관내 저소득층 중·고생 복지를 위해 기획했다. 군포시청에서 20명을 추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명단을 전달했고 우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나눔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종건 기자



9월2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최홍만과 마이티 모의 XIAOMI ROAD FC 033 무제한급 타이틀매치 예고 포스터. 두 거인은 생애 3번째이자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겨룬다. 사진제공 | ROAD FC

## “쉬운 남자 최홍만” 마이티 모의 도발

내달 24일 초대 무제한급 타이틀전 마이티 모 “역사 남을 명경기 될 것”

### ROAD FC

“최홍만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할 것이다.” 마이티 모(46·MILLENNIA MMA)가 9월2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XIAOMI ROAD FC 033에서 최홍만(36·FREE)과의 ROAD FC 무제한급 타이틀매치를 앞두고 핵주먹을 예고했다. 마이티 모가 최홍만을 누르면 ROAD FC 초대 무제한급 챔피언에 등극한다.

두 사람은 무제한급 토너먼트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파이터들을 꺾어 왔다. 마이티 모는 최무배와 맹현만, 최홍만은 투오첸차오와 아오르꺼려를 제압해 결승전에 진출했다. 마이티 모는 맹현만과의 경기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될 정도로 점전을 벌였다. 부상 탓에 준결승전이 끝난 4월만 해도 결승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4~7개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력으로 6월부터 훈련이 가능해졌다. 결국 9월 24일 최홍만과 ROAD FC 초대

무제한급 타이틀전 치를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은 오랜 인연이 있다. 같은 시기에 입식격투기에 뛰어들어 양성하 활동했고, 현재는 ROAD FC에서 난타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차례 맞대결 경험이 있다. 1차전에서는 마이티 모가 승리, 2차전에서는 최홍만이 승리했다. 이제 9년이 흐른 뒤 마이티 모와 최홍만은 ROAD FC 무제한급 토너먼트에서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결정지을 참이다.

마이티 모는 “예선에서 만났던 상대들과도 결승전 상대 최홍만이 더 쉽다. 난 준비가 됐다. 최홍만에게 는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고통을 줄 일만 남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번 결승전을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최홍만이 지난 경기에서 나를 이긴 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 이번 무제한급 토너먼트 결승에서 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최홍만과의 경기는 역사에 남을 명경기가 될 것이다. 내가 케이지에서 최홍만을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기대하라”고 했다. 마이티 모와 최홍만의 인생 3번째 대결이 펼쳐지는 XIAOMI ROAD FC 033 무제한급 토너먼트 결승전은 9월2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종건 기자

## 스포츠버스 타고, 스포츠영화 보고

대한체육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스포츠버스·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스포츠 733

대한체육회(회장 김성태·강종호)가 31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시민, 행복 나눔 종로별 생활체육교실에 참가하는 청소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 날 스포츠버스 체험 및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한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개최되는 행사로 스포츠 버스를 체험하고 스포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버스는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운영한다. 버스 내부에서는 인바디 측정, Wii 스포츠, 생활체육 동영상 및 스포츠 건강정보 열람 등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미니농구, 야구, 테이블 축구, 한궁, 뉴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관 2층 라이딩영상관에서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최고의 명승부를 펼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감동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7·감독 임순례)’을 상영한다. 영화 상영은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운영된다. 스포츠버스는 도서산간벽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대국민 스포츠 참여 독려를 위해 특별 운영된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권기선 신임 대한국학기공협회장 취임

권기선(52·사진) 대한국학기공협회장이 27일 충남 천안시 국학원에서 제6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통합 후 선출된 첫 번째 회장인 권기선은 국립경찰대학교(2기)를 졸업하고 경북 영주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청와대 정부수석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경북경찰청장과 부산경찰

청장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임원 및 국학기공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권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학기공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75억 지구촌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한국학기공협회는 국학기공의 세계화를 위해 10월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4회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를 개최한다. 편집 | 고형일 기자 ico@donga.com